

샤느냐, 죽느냐가 눈에 달렸다(45)

성경말씀: 눅11:27-36

지난 주,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으. 말을 함. 오히려 트집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요구” 주님의 말씀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나 왕국은 망한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이르렀다.”, “마귀보다 강한 자가 그를 노략한다. 내가 바로 그 존재다. 나와함께 하지 않으면 마귀 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 편 아니면 마귀 편, 우리는 누구 편인가? 같은 생각, 믿음, 소망 마귀가 나가니 외적 치장, 그러나 외적 치장은 소용이 없다. 내면의 변화, 나중 형편이 더 나쁘다. 종교적 열성이 아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세대가 바로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은 세대

한 여자의 응답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다!”(27). 예수님도 인정하심(28). 원래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귀한 심성을 보시고 선택, 복 주심(눅1:28, 30, 42-43), 카톨릭 교회로 인해 이 땅에서 가장 크게 오해받는 여인 천주교의 마리아는 성경의 마리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하늘의 여왕”, 무염시태, 몽소승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마리아를 사랑하고 훗날에 그녀를 만난 것을 기대한다. 사생아 출산의 이유로 멸시와 천대, 십자가에서 아들의 처형(눅2:35), 부활, 승천, 오순절 우리 교회에 마리아처럼 귀한 품성으로 귀한 아이들을 출산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인들(눅1:38)

예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28).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도 된다. 목사, 장로 집사의 아들딸이 아니라도 좋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계1:3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계시, 영감, 보존, 번역, 해석, 적용,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복을 받으려면 일단 말씀들이 다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야 듣고 지키지 않겠는가?

마24:35, 계22:18-19

하나님께서 말씀 보존의 약속을 주셨으므로 그분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는다.

그 말씀이 우리 손에 지금 있다. 뜬 구름 잡는 것이 아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내 손안에 있다(롬10:8-9).

목사 겸 교사가 있다(엡4:11-12). 성도들의 훈련과 양육이 있다. 교제가 있다(목, 금, 주일 오후).

어떤 예수님을 바라는가?(29)

사람마다 예수님을 대하는 관점이 다르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말 못하는 마귀를 내쫓으니 (1) 마귀를 힘입어, (2)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함,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 주고 이스라엘이 최강국이 되게 하는 메시아 상, 자기들의 고정 관념 속에 들어 있는 메시아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온 인류의 아버지, 창3:15, 여자의 씨로 온 세상 모든 사람 구원이 목표, 즉 우리 생각만 하지 말자.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나와 가족, 우리 교회 중심: 맞는다.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머무르면 유대인들처럼 되기 쉽다. 지금의 세상 변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 인공지능의 승리

이러한 체제로 적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징계하는 시대가 열린다.

세상의 끝이 다가옴: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음질하고 지식이 증가한다(단12:3).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가상현실 세계가 열리면 진짜 현실과 가상현실의 구분을 못하고 귀멸한다. 인간 복제, 인간과 짐승의 하이브리드 카메라 생산, 인류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생긴다(노아의 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심판 초래

예수님은 인간에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려고 오셨다. 그것이 구원의 참된 의미

악한 세대(29)

예수님이 악한 세대라고 하신 자들의 특징: (1) 끊임없이 표적 요구, 신사도, 오순절 은사 운동

(2) 돈 벌려고 교회에 오는 자들, 딤편6:3-10, 심지어 이득을 취하려고 교회 방문, 국회의원 등

(3) 24-26절의 부정확한 영 이야기처럼 외적 치장은 하는데 속중심이 변하지 않는다.

주님의 정죄의 말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 세대에게 줄 것이 없다(29).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 주전 77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맹주로 아시리아가 등장함
아시리아는 썸의 둘째 아들 앓수르에서 유래, 수도는 니느웨: 엄청나게 커서 도시를 도는 데 사흘 정도 걸림. 어린아이만 12만 명, 전체 인구는 60만 명에 이르는 대도시
포악한 통치, 사악한 우상 숭배

하나님 자신의 공흠을 보이기 위해 유대인 대언자 요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냄.

요나의 생각: 하나님은 공흠이 많으므로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 유대인이 왜 이방인에게 가나?
다시스(스페인 행)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 결국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짐
큰 물고기 즉 고래가 그를 삼키므로 그는 물고기 배 속에 밤낮으로 사흘 동안 갇혀 있음(욘1:17)

많은 사람들의 오해: 요나는 살아 있다가 물고기가 토하니 밖으로 나왔다. No!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죽었다. 몸은 죽고 그의 혼은 지옥의 배 속에 들어갔다(2:2, 6).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다(2:6).

그 결과 고래가 그를 토해 내자 그의 혼이 다시 그에게 돌아와 그는 부활하였다.

마12:40, 행2:25-28

“마귀의 간계를 통해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것이 너희를 정죄하는 근거이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것보다 더 큰 표적과 기적이 어디 있는가?”

“마귀는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한다. 나는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다. 마귀와 인간 모두를 창조하였다.”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듣지 않으려는 세대에게는 부활의 표적이 정죄의 근거가 된다.

부활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요나가 선포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섬(32)

요나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역하던 불순종의 인물,

그런데 그가 가서 선포하는데 니느웨 사람들 전체가 회개함. 1000년 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크고 흰 왕좌 심판(계20:11-15), 구원받지 못한 자들 부활, 정죄의 심판, 이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부활하여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함. “우리는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어찌서 너희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회개 촉구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죄는 올바르다.”

솔로몬 당시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먼 여행기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옴(왕상10장). 솔로몬은 누구인가? 배도의 극치, 시작은 좋으나 나중이 안 좋은 인물, 쾌락에 몰두함,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영광을 보여 주자 세바의 여왕의 고백(10:9)
결국 세바의 여왕이 에티오피아 땅으로 돌아가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결국 에티오피아의 팔라샤 유대인들에 생겨남

요나와 솔로몬: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의 명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자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알려주면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성품, 요구 사항, 보상, 심판, 정죄 등이 모두 여기 이 책에 이룩되어 있다.

그래서 이 보존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한다.

이 악한 세대의 문제: 그들은 눈이 망가졌다(33-36)

등잔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두는 이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33)

몸의 등불은 눈(34), 단일한 눈이 있고 악한 눈이 있다.

왜 눈이 나오나? 사람에게는 여러 지체, 사람을 생각하며 얼굴, 얼굴에서도 눈
눈이 고장 나면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34).

눈 자체를 통해 빛이 들어온다(35).

“그러므로 눈을 단일하게 하여 빛으로 네 자신을 채우라. 이 악한 세대는 눈이 비뚤어졌다.”

단일한 눈: 일편단심의 단순한 눈, 주님께로 고정해야 한다(히12:1-2, 시119:130).

보존해 주신 성경으로 고정해야 한다. 신약교회로 고정해야 한다.

기득권 등 여러 가지 생각하면 눈이 어두워진다.